

“흥겨운 전통가락에 전주가 들썩”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성료

국내 최대 규모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민속예술축제인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1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한 이번 축제는 전국 시·도를 대표한 총 34개 단체 2000여 명의 경연 참가자와 관람객 등 연인원 총 3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행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본격적인 축제 일정 전부터 대회 기간 내내 전주시 주요 장소를 방문해 팔도민요와 판소리 등 민속예술을 선보여 경연 참가자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축제 둘째 날인 14일에는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폐막한 후 이복5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 참가팀과 전주 지역 전통예술단체, 전주시민들이 경기전에서부터 국립무형유산원까지 함께 공연하며 행진하는 야간 퍼레이드 '온고을 길고래기'를 진행해 축제의 흥을 돋웠다.

또한 올해 축제에서는 대한민국 민속예술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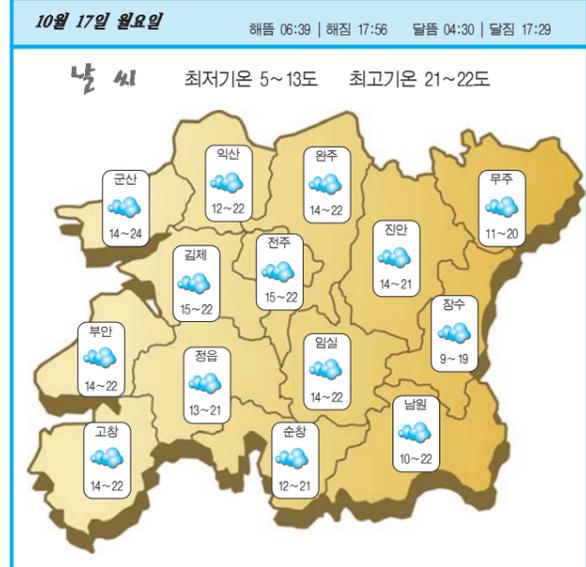
올해 처음 시작한 토크콘서트에는 14일과 15일 각각 소리꾼 장사익과 이준익 감독이 각각 참석해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예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또, 민속 예술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13일 학술대회에서는 진정한 민속 축제의 방향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전주의 대표 먹거리인 비

빔밥을 재해석해 선보인 먹거리 마당과 탈춤과 남사당놀이를 배워볼 수 있는 교육 마당, 프리마켓 등이 진행돼 시민들이 직접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축제를 즐겼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일제강점기의 문화 탄압과 6·25전쟁으로 인해 사라져가던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196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처음 시작됐다. 지난 1994년부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민속 예술 전승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전주음식 명소·명가·음식장인 추가 선정

명소에는 반야돌솥밥 명가 안명자·김명옥씨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과 대를 이어 손맛을 지켜온 음식대가들이 전주음식 명소와 명가 타이틀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최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공고를 통해 접수된 명소와 명가를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와 조리심사를 거쳐 명소 1곳과 명가 2가를 추가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명소로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손꼽혀온 돌솥비빔밥의 반야돌솥밥이 선정됐다.

또한 개성 있는 감치 맛을 자랑해온 안명자 씨와 김명옥 씨가 전주음식 명가 반열에 올랐다.

이로써, 전주음식 장인은 명인 7명과 명소 2곳, 명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가 이처럼 전주음식 명소와 명가를 추가 지정하게 된 것은, 7명의 전주음식 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명소와 명가를 추가 지정해 세계적인 음식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다.

시는 추가 선정된 전주음식 명소·명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걸 맞는 현판을 제작해 업소입구에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황금 홍삼 찾아라” 지난 14일 '2016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진안군 마이돈 테마파크에서 황금 홍삼을 찾는 보물찾기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진안군청 제공>

특히 전주를 대표하는 이들의 손맛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명인·명가의 후계자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외 홍보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를 추가 지정했다. 또, 전주시 향토전통음식심의회 심의와 전북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전주 고유의 맛을 자랑하는 향토음식도 기존 비빔밥

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에 오모거리탕과 전주백반, 전주패백음식을 포함한 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특유의 슬기와 지혜를 담은 훌륭한 음식문화를 꽃피워왔다”면서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등 음식장인 선정·발굴로 맛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찬란한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음식 명인은 현재 김연임·박병화(비빔밥), 임복주(돌솥밥), 박영자·유인자(한정식), 우순덕(전주백반), 신복자(패백음식) 등 7명이며, 한국집(비빔밥)과 반야돌솥밥(돌솥밥)이 전주음식 명소로, 함정희(생청국장), 유홍립(한과), 안명자·김명옥(김치) 씨가 전주음식 명가로 각각 지정됐다.

/김영재 기자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김승수 전주시장, 국회 예결위 방문 세계무형유산 포럼 관련 국비 지원 요청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무형유산의 지속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김형미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핵심사업인 세계무형유산 포럼과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 전주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국가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우선, 세계무형유산 포럼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회원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형유산의 보존·협력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 시장은 또 전통한지 생산지를 복원해 한지공예 산업을 활성화하고 유·무형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대표적인 문화집적 한지공예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도록 도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 중인 전주동물원을 최대한 원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전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의 증액 반영을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일일선실천국민운동본부, 이달의 청소년 선발

이동건·최바다·강해라 등 3명

(사)일일선실천국민운동본부(이사장 이상익)는 지난 14일 10월의 자랑스러운 청소년으로 이동건(이리남초 6), 최바다(군산용문초 5), 강해라(김제북초 5) 등 3명을 선발하고 상패와 상품을 전달했다.



이동건 군

최바다 양

강해라 양

이들 어린 이들은 일일선운동을 통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성격이 우수한 예의바른 어린이들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